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300 편(A해)

제1독서: 사 도 8, 5-8 14-17

제2독서: I 베드 3, 15-18

복 음: 요 한 14, 15-21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103위 성인들도 우리과 같은 인간이셨다”

박종근 신부

드넓은 5월의 하늘에 비둘기가 날고,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103위 순교 선열 복자들이 성인으로 온 세계에 선언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감격하였고, 기쁨이 가슴이 벅찼다.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의 생을 계속 치배하리라.

지난 5월 6일 여의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된 103위의 순교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순교한 1만여명의 우리 순교 선열들은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도 태어나 살으셨고 프랑스 성직자들을 제외한 성인들과 순교자들은 우리와 같은 피부와 언어를 가지셨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한 국민의 피가 순교 선열들의 몸속에도 흘렀던 것이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생활 형태나 직업도 오늘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남 종삼(요한) 성인은 고급 공무원이셨고, 허 협(바울로) 성인은 군인이셨으며, 임 치백(요셉) 성인은 선원, 권 득인(베드로) 성인은 상인이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구 출신 손 선지(베드로) 성인은 전교사 겸 회장이셨고, 조 화서(베드로) 성인은 농민이셨다. 오늘의 신자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던가? 무엇이 특출해서 성인까지 되셨는가?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열심한 신자이셨다. 그들은 참으로 열심하여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요한 14장 15절)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생명을 바쳐 지켰기에 성인이 되셨던 것이다. 신자들의 구성을 보면 여자가 많고 또 여교우가 남교우보다 열심하다고 한다. 재물이 없어서 아니면 재물 때문에 열심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좀 망서려진다 고 간혹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백이 믿지 않아서, 집안에서 혼자만 믿는 외척교우라서, 신앙생활에 충실치 못한다고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영광된 순교 성인들을! 그들에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유무, 직업과 가정과,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 성인이 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인이 될 수 있는 터전(삶의 자리)이 되었다.

103위의 성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 조건하에서 성인이 되셨다면 우리도 현재의 가난이나, 직업이나, 배움이나, 가정 환경이나, 기타의 인간 조건하에서도 열심히만 살면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께 그 뜨거운 열심을 구하면서...
(임실 주임신부)



인간 선언

-프로 야구 이야기

직업 야구단 사이의 선수 교환을 트레이드(trade)라 한다. 따라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가 서로 교환되고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移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트레이드는 대개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방출(放出)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팀의 화합을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화제의 꽃을 피우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 트레이드에는 인간적인 면에서 따지고 넘어 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비록 트레이드 제도가 직업 야구단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분명히 인권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찌 인간을 부속품 같아 끼우듯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선수 하나 하나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단주의 선택은 계약 당시에 끝나야 한다.

자기 집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일은 꼭 바람직하다. 서로가 그러한 물건을 바꿔 쓰는 일이야말로 그 물건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건아닌 사람을 그렇게 바꾸다니! 심하게 표현하면, 이전 마치고 노예시장을 연상하게 한다. 영화에서 본 늙고 병든 노예, 주인의 눈총과 구경꾼들의 눈초리에 몸 둘 곳을 몰라 몸을 떨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자.

물건처럼 거래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노예시장의 구경꾼처럼 되어 가고 있다. 도대체 사람값이 얼마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우리가 아니던가! 이제라도 인간선언을 하자. 마치 방출된 선수가 구단주에게 분노의 방망이를 휘둘러 대듯이.

숲정이 산책



성모의 밤에는
참석하자

교황 성하 방한과 시성식을 마치고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교황님의 한국방문과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신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와 우리 성인 순교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는 7위 주보께서 시성이 됨으로 성인주보를 모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황님께서서는 무사히 로마로 돌아가셨고 103위 시성식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교황 방한의 뜻을 살리고 시성식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일입니다. 수년간의 준비와 엄청난 많은 재물의 지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치루어진 교황 방한과 시성식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대사건이 이대로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당부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최고 목자로서 한국교회에 거는 기대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교황님께서 남겨주신 말씀들을 깊이 명심하고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을 모시는 광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훌륭한 교회로 전세계에 나타나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믿음과 특히 순교선열들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 성인들을 갖게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한층 더 그분들을 전세계에 현양하고 우리 자신도 그분들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황 방한과 103위 시성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도 크나큰 불을 일으키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단비가 흠뻑 이 땅위에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비가 내린 후에 생생하게 돌아나는 곡식과 화초를 잘 가꾸는 일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황님의 방한과 103위 시성을 쉽게 잊어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본당과 교구, 우리

오월의 찬미

김 엘리사벳

상큼한 장미 향기와 함께
 당신은 나의 굳은 마음에
 살며시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 어머니,
 백합과 같은 순결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당신은 나의 일그러진 표정에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어머니!
 당신은 계절의 여왕인 오월을 사랑하시어
 이 계절에, 고요하고 은은한 음성으로
 많은 이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셨기에
 나는 마냥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바이올렛처럼 싱그럽고 깨끗한
 당신의 향기를 마음 안에 가득 안고
 나의 사랑을 당신의 발 아래
 겸손되이 바칩니다.

어머니!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저로 하여금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어머니!
 당신과 같이 겸손하고 열렬한 제자,
 충실하고 온순한 딸이 되도록 도우소서.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지원자)

사회 안에도 교황님의 메시지가 실현되고 시성의 의의가 헛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함께 다짐합니다. 새로 시성된 우리 주보성인들의 전구로써 하느님의 가호와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대 중 낙원 맨션

모델 하우스 공개 중

장소: 전주시 서완산동 용머리고개 (에드빌론 보임)

유한회사 대 중 산 업

대표이사 유 중 업(스테파노)

본사 2-4871 75-4751

모델하우스 6-2326

대 중 낙원 맨션 분양

(5층 기준 단위: 만원)

평형	세대	분양가격	용자금	실입주금
24.5	30	1,980	600	1,380
25.3	5	2,050	600	1,450
27.1	40	2,190	600	1,590
27	5	2,200	600	1,600
29	30	2,350	600	1,750
38.9	10	3,330	부과세포함	3,330

□ 소년 꾸리아 한 톨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단장-김 치영)가 오는 6월 6일로 톨을 맞이한다. 그동안 소년 꾸리아는 박 찬길 신부님의 지도와 각 본당 신부님들의 따뜻하고 희망에 찬 격려, 각 본당 성인 꾸리아 간부들의 환대와 육성에 힘입어 21개 브레시디움으로 번창해 오고 있다.

소년 꾸리아에서는 6월 6일 1일 피정을 전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꾸리아를 5개시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지역으로 분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교구 84년 제1회 성령세미나

전주교구 성령세신 봉사회(지도신부-박 중신, 회장-채 수현)에서는 교구단위 성령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각급 단체 지도자들의 참여를 요망하고 있다.

일 시 : 6월 9일 오후 2시~10일 오후 6시

장 소 : 전주 효자동 성당

참석범위 : 각 본당 사도회 임원 및 각급 단체 임원(예정인원 400명)

강 사 : 서울대교구 오순절 봉사회 전임강사

회 비 : 6,000원

준비물 : 성서, 성가책, 필기도구, 모포

□ 103위 시성 경축 로마대회 참가신청

한국 천주교 103위 시성 경축식을 오는 10월 14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전 세계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 성하게서 집전하신다. 이 경축식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교구청 사목국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경축 일시 : 10월 14일 오전 9시~12시

여행 순례지 : 불란서,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지의 성지

경 비 : 약 150만원

기 간 : 15박~17박

출발 예정 : 10월 1일~12일 중에(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신청 자격 :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천주교 신자로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 마감 : 6월 15일까지

□전주교구 7위 성인 ㉓

성 이 명서 베드로(1821~1866)

일명 '재덕'으로도 불리는 이 명서는 충청도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여러 지방을 유랑하다가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전주지방의 교우촌인 성지동에 정착했다.

1866년 병인박해의 여파가 지방으로 퍼지고 전라도 지방에서도 전라 감사의 지시로 전주 부근의 교우촌인 성지동과 대성동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었다. 12월 5일 포졸들이 성지동을 습격할 때 이 명서는 조 화서의 피신 권유를 뿌리치고 병든 몸으로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전주 감영에서는 병자인 이 명서를 배교시키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신문하고 혹형과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했으나 이 명서는 "내가 몇 번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나의 하느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배교를 거부하고 함께 체포된 교우들과 부지런히 기도하며 순교를 예비했다. 드디어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밖 순정사에서 참수형을 받아 4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요십이(564) 김병오

필리핀 당국입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데모방지방법을 가르쳐 달라구요?

국민이 데모하도록 동아두시오
경우에 따라 격렬하게 데모하도록 유도하시요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데모대를 비난하고 간첩을 잡았다고 보도하시요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겨)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롯데우유 남원대리점
신선한 우유
내고장 우유
남원시 금동 192
☎ 남원 7 6 4 6
김 정 애(루치아)

칼라화보 요한바오로 2세

- 초대교황 베드로 1대에서 264대, 사진과 프로필
- 바티칸 궁전 내의 전경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경
- 평화의 사도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세계 20개국 사목방문
- 파티마 기적의 "투치아나 수녀" 교황 알현
- 교황성하 저격범 아그자와 "화해의 만남"

판매문의 : 각성당 값 : 5,000 원

금·은·보석·고급시계
*예물상당
*디자인 세공
금 파
전주시 교사동
오거리 한국무선영
☎ (72)-3 0 6 6
유 승주·황 로사리아

□개원안내
동 보 한 의 원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 52-4 6 6 6
동 부 약 국
약사 범순복(안나)
☎ 3-7 2 1 7
이리시 동부시장 내

(4) **술 정 이**

☆ **축!** **건진:** 고산 본당(27일)

1. **동산 본당 첫미사:** 오늘 오후 2시. 축하식-오후 3시, 위치-동산촌 입구, 사제관 전화 - (74)4614
2. **제3지구 울드레아:** 27일 오후 2시, 장소-오룡동 성당, 초청강사-하승백(서울 평협회장)
3. **혼인법원 개원일:** 28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4. **고산지구 M.E 제6차 환영미사:** 28일 오후 7시, 장소-월명동 성당 교리실
5. **성령생활 은혜의 밤:** 30일 오후 7시30분, 주제-증거의 생활, 장소-파티마 성당(효자동)
6. **제13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회의:** 6월 3일 오후 2시, 전주 김정이성당, 대상소년꾸리아 간부
7.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피정:** 6월 6일 오전 9시, 장소-노송동 성당, 대상-전북지구 각 형제회 형제 자매, 지참물-수도복·기도서·성가집·복주, 회비-1천5백원(점심 제공)
8. **6월 성소자 모임:** 6월 10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성소자 모임회원 및 본당신부 추천자 (답자), 지참물-성서·공동체 성가집

☐ 전화번호 변경: 부자성당-사제관 75-0592, 수녀원·사무실 2-5238, 성글라라 수녀원 3-4773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건진교리 신청:** 6월 3일까지 사무실 제출
교리시간-6월 5~9일(5일간) 저녁미사 후
건진일-6월 10(성신 장립 대축일)
 2. **울드레아:** 금일 9시 미사후 본당에서 출발,
장소-구이던 독배 야산
 3. **전 세시리아 수녀님:** 중신하원 피정, 기도중 기억을
 4. **각 신심단체 6월 계획서:** 금일까지 제출
 5. **성모의 밤:** 31일 저녁8시, 성모상 앞에서
 6. **꾸리아 옥외행사:** 6월 3일, 장소-구이 저수지
 7. **벽돌 봉헌:** 18,589장 봉헌
- ☐ **지난주 봉헌금:** 1,091,522원 **교무금:** 711,000원
특별 감사 헌금: 김세레나(5,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홍태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성전 신축헌금 신입서 봉헌:** 제2차 봉헌일-오늘
해당지역-남노송동·중노1가·중노2가·인후 아파트·
우아 아파트, 제3차 봉헌일 31일(성모의 밤 행사중
에) 해당지역-인후동·우아동·5개공소·금상리·아중
리 지역(한가정도 빠짐없이 참석해 성전 건립합시다
 2. **성모의 밤 행사:** 31일 저녁 7시30분
목주·조·성가집 지참하시고, 각 단체 및 가정에서는
성모님께 기도와 헌사, 헌화(화분)를 봉헌할 분은
사무실에 30일 까지 접수하세요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구역 봉사자 모임:** 6월 1일 저녁 8시, 꼭 참석하세요
 5. **대의원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서 수녀님 피정:** 중신서원 잘 하신도록 기도합시다
- ☐ **지난주 봉헌금:** 538,520원 **교무금:** 690,000원

(덕진)

전화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동산 본당 신부님 환영 및 본당 승격 축하식**
오늘 오후 2시
 2. **성모 동굴 축성식:** 오늘 오후 4시(주교님)
 3. **성모의 밤 행사:** 30일 밤 8시
단체-꽃다발, 개인-꽃불 봉헌
 4. **축하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1등
 5. **본당 야외미사겸 소풍:** 다음주(6월 3일)
장소-왕능, (9시까지 본당 집결 바람)
당일 본당 미사는 새벽 5시 저녁 8시만 있습니다
 6. **예비자 교리반 안내**
화요일 오전9시 노인반·10시 주부반-김수녀님 지도
수요일 밤8시 젊은이반-김요한 신부님 지도
목요일 밤8시 직장인·성인반-본당신부님 지도
금요일 밤 8시 어머니반-강수녀님 지도
토요일 낮 3시 고생반-강수녀님 지도
 7. **금주 모임:** 진복회-오늘, 사도회 상임위원-6월2일
 8. **청소:** 주일학교 어린이·교리교사-6월2일 오후 3시
- ☐ **지난주 봉헌금:** 561,920원 **교무금:** 225,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 ◎ 6월은 예수 성심월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 철례:** 6월 2일 저녁 8시
 3. **김 수녀님 피정:** 6월 4~15일(솔피 성지에서)
 4.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5시, 저녁미사-8시

5. **교패 불이기 가정방문:** 29일 신부님·수녀님·사무장
 6. **L.M 옥외행사:** 6월3일-덕진 왕능산 오전10시30분
산에서 미사, 전신자 참석바람(도시락 지참) 10시30
분 오후 3시 미사 없음(예수승천 대축일)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장기연 ②최정순
- ☐ **지난주 봉헌금:** 128,470원 **교무금:** 583,750원

(서학동)

신부 ⑧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사도회 월례회-6월6일 저녁미사 후
 2. **사제양성 후원:** 김상곤·손숙자·이정빈·김낙완·김광
수·박경환·김나성·신영창·박형식·김민수·박중순·김
한기·김수연·김순덕·차진석·이겨영·구양례·온요한
(자 1주좌) 감사합니다
 3. **성모회 회장:** 한울손재,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4. **성모의 밤:** 31일 저녁미사후(이날 10시미사 없음)
 5. **감사:** 김수연 제대꽃-1만원
 6. **차주전례:** 독서-①한상철 ②차상열
- ☐ **지난주 봉헌금:** 342,510원 **교무금:** 360,000원

(숲정이)

전화 ⑦373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요한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돈 보스코회:** 오늘 오후 6시(매주일 오후 6시)
 3. **신학생 후원회:**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성모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없음
 5. **첫 영성체 교리:** 6월4일~23일 오후 5시
첫 영성체는 6월24일 공식미사
 6. **금주전례:** 해설-강원도, 독서·기도-강삼·정송자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강원도·김영희
- ☐ **지난주 봉헌금:** 260,020원 **교무금:** 559,700원

(전동)

전화 신부 ⑥208 주임 신부 김치삼
사무 ③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성모의 밤 행사:** 30일 7시30분 미사후(주일학교-28-
일), 지참물-초·복주·꽃
 5. **주일학교 자모회:** 6월5일 오전 10시
 6. **첫 영성체 교리시작:** 6월1일~29일, 월~금 오후 5-
시, 대상-국민학교 3·4·5·6학년
 7. **성가정회:** 6월 1일 12시
 8. **주일학교 소풍:** 다음주(6월 3일) 9시 집합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상태,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양자,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이훈 ②최중만
- ☐ **지난주 봉헌금:** 808,420원 **교무금:** 626,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성지순례:** 28일 천진암(5천원)
 2. **성모의 밤:** 29일 밤 8시, 준비물-초·복주·편지
 3. **은혜의 밤:** 30일 저녁 7시30분
 4. **사목 방문:** 6월1일 오후 삼천동
 5.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밤 8시30분
 6. **감사:** 야외미사 기념타올(300장) 증정하신 분들께
 7. **사목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8. **성모회의:** 6월2일 오후 2시
- ☐ **지난주 봉헌금:** 327,950원 **교무금:** 475,000원